

테마칼럼

문학가 시대

광주3기

디자인 세상

교육가 시대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 하자



이난경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단절이 아닌 소통과 융합, 인간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한 감성의 디자인으로 미래를 디자인 하자.

리더 가버이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다지만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인 자명하다.

디자인은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의 디자인 이슈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보와 IT, 문화와 지역, 환경과 에너지, 생태와 생명공학이다.

그에 비하면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 개발, 인터넷 정보력의 부재로 인한 소통 불통, 창의력 부재의 환경을 조장하는 청소년 교육문제 등으로 국민과의 거리감만 키운 것에 소고기 문제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참았던 민의가 폭발했다.

이렇듯 개발도상국가 시절의 사고를 가지고 IT대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식도 문제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잘 하겠다는 말만 믿고 대통령을 뽑아줬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서울대학교가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육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서울 시내 종교교에 디자인 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마켓 창의력을 발산하려면 사회도 달라져 있어야 할 것이다.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단절이 아닌 소통과 융합, 인간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한 감성의 디자인으로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 하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화된 '물류대란' 국가경제 걱정이다

우려했던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지역 화물연대가 12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화물연대는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예 시작된 화물연대 전남지부 파업으로 전남지역은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한 이유는 경유값이 대폭 올라 현재의 운송비로는 운행 원가조차 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차를 운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는 화물연대의 급박한 현실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물류 마비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가능하다고 어렵다.

정부는 차주들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화물차량의 공급과잉, 지입대 등 낙후된 운송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화주, 화물연대는 국민화합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대의(大義)를 발휘해줄 바란다.

이동통신 3사 '폭리' 국민을 '붕'으로 아나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동통신 3사가 챙긴 '낙전(落錢) 수입'은 8천억대에 달한다. 가입자의 통화량을 초 단위가 아닌 10초 단위로 계산해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이다.

3사는 지난 2001년 전속속도가 빠른 새 통신망을 서비스하면서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시간대에서 용량제로 전환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잉공용 유틸리티인 '그리스'를 덧붙여, 미끄럽게 만들어 거역하는 고사하고 사다리대로 오를 수 없었다.

하루만에 사라진 이 장벽에 시위도 중기발한 문구가 등장했다. '경우 08년 서울의 랜드마크 명박산성 ☆축'이라는 플래카드가 컨테이너 장벽에 내걸렸다.

6·10 시위를 보도한 외신들도 이 장벽을 빠뜨리지 않았다.

6·10 시위가 평화적으로 끝난 후 경찰은 장벽이 '임무'를 훌륭하게 소화했다고 자평했다.

6·10시위를 보도한 외신들도 이 장벽을 빠뜨리지 않았다.

과잉공용 유틸리티인 '그리스'를 덧붙여, 미끄럽게 만들어 거역하는 고사하고 사다리대로 오를 수 없었다.

하루만에 사라진 이 장벽에 시위도 중기발한 문구가 등장했다.

6·10 시위를 보도한 외신들도 이 장벽을 빠뜨리지 않았다.

6·10시위를 보도한 외신들도 이 장벽을 빠뜨리지 않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칼럼



최재영

얼마 전 친한 친구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상담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명치끝이 아프고 설사를 자주해 내과에서 내시경 등의 검사를 했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경성위장장애는 사회가 경쟁이 심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더욱 많아지는 추세며, 요즘에는 늦게 자고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소화기 질환 40%는 '신경성'입니다

끝이 아프다. 또 위가 막힌 듯 답답한 느낌, 먹기만 하면 더부룩하며 헛배가 부른거나,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안정이다. 심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안정제 및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다.

심경성위장장애에는 직장에서 겪는 갈등과 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 등이 위산 분비나 위장관의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 경우가 있다.

여기에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천천히 먹고 잘 씹어 먹을 것과 식사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음식점 치실 제공하면 치과질환 예방 도움

치솔질이나 충치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 충치가 생기고 치과 질환이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양치 때문이라고 한다.

직장이나 일 때문에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예전에 한 고깃집에서 손님들에게 치실을 주는 것을 봤다.

기고



김광식

얼마전 박종영 전남도지사가 투자 유치차 워싱턴을 방문, 동포 간담회를 가졌다. 박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면서 "전남은 아직 도 낙후지역이 많고 낙석하지 않은 도정 살림과 인구 유출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1박2일, 2박3일 관광 패키지 등을 만들어 USO 등에 프리젠테이션을 해볼 것을 권한다.

전남도 토속관광·의료휴양 최적지

주로 군인과 국방 공무원들이다. 10여 년간 그들에게 몰았다. 한국에서 근무할 때 아름다운 고장 전남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대체로 미국 사람들의 관광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다. 그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감동을 받는다.

전라도 전통음식 조리법 표준화 시급

전라도 음식의 우수성과 외국의 관심도에 비해 세계화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음식이 세계화 되려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이 만들기 쉬워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이다.

어떤 외국인은 갈비찜 조리법을 보며 음식을 만들었더니 갈비탕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좋아하는 사물놀이까지 결집하면 훌륭한 한마당 공연장이 될 것이다. 물론 공짜가 아니다.

전남도 관광객들이 시야를 더 넓고 크게 보는 안목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접목한다면 고향 전남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둘째, 전남을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클러스터로 구축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살인적이다. 전 국민의 70%가 의료보험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조리 방식은 그저 요리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약간', '적당량', '알맞게' 등 호호하기만 하다.

가중 조리 방식은 그저 요리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약간', '적당량', '알맞게' 등 호호하기만 하다.

가중 조리 방식은 그저 요리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약간', '적당량', '알맞게' 등 호호하기만 하다.

가중 조리 방식은 그저 요리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약간', '적당량', '알맞게' 등 호호하기만 하다.

Advertisement for '명박산성' (Myeongbaksanseong) featuring a map and text about the site's history and current status.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